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2024.5.20.(월)

김인아 보좌관 (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민주당 22대 당선자, 목포 세월호 방문 “안전사회 만들 것”

2024년 5월 20일 (월)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주민 의원)와 전남도당은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과 함께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를 방문해 해양수산부 세월호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세월호 가족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지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세월호 시찰에는 세월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목포 지역 국회의원인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김현, 박해철, 양문석 세 국회의원 당선자, 박지혜・김윤・이정헌・황정아・서미화・조계원・부승찬・박홍배・김남근・임미애・이훈기・이용우・박선원・송재봉・차지호 당선자 등이 참여했다. 또한 전라남도 명창환 행정부지사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전라남도 도당 관계자 등 30여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 거치 현황과 앞으로의 보존 계획을 보고 받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헌화를 한 후, 세월호 선체 내부 일부를 시찰했다. 이후 4.16국민연대 주최로 진행된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22대 국회에 요청하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과제를 전달 받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성과를 내겠다”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세월호지원법이 올라가 상정될 예정이고, 22대에도 남은 과제들이 많은 만큼 당선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시찰행사를 주도한 박해철 안산시병 당선자는 “세월호 거치 현장에 직접 와본 것은

처음인데 안산의 당선자로서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라며 “22대에서 세월호 및 각종 사회적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 고 강조했다.

가족협의회를 대표해 김종기 위원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오늘 세월호 현장에서 참사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다” 고 당부했다.

세월호는 2017년 3월에 인양된 후, 세월호 선체, 유류품 8629점, 적치물 450톤 등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선체보존 작업, 교육 및 전시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끝)

※ 붙임 - 사진

·출입금지 위험·